

〈제 748호〉

-주간- 광주 경영계



광주경영자총협회
GWANGJU ENTERPRISES FEDERATION

광주은행

◆지역인재 장학금 1억 3000만원 전달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광주·전남지역 출신 학생 104명에게 총 1억3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광주은행은 지난 1981년 재단법인 광주은행장학회를 설립하고 올해까지 42년 동안 4600여명의 지역 장학생들에게 총 39억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급해왔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선발된 장학생 모두가 광주은행 장학생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을 이끌어 나갈 핵심 인재로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광주은행은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지역인재 장학금 1억 3000만원 전달



◆개점 28주년 기념 감사 대축제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 특별자금대출’로 신규자금 3천억원, 만기연장자금 3천억원을 편성해 9월 한 달간 지원한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특별자금은 금리상승과 경기침체 등 지역경제 현안을 고려한 상생경영의 일환으로, 추석을 앞두고 자금 수요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민을 위해 편성되었다”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호타이어

◆서구 아동그룹홈에 사랑의 빵 나눔 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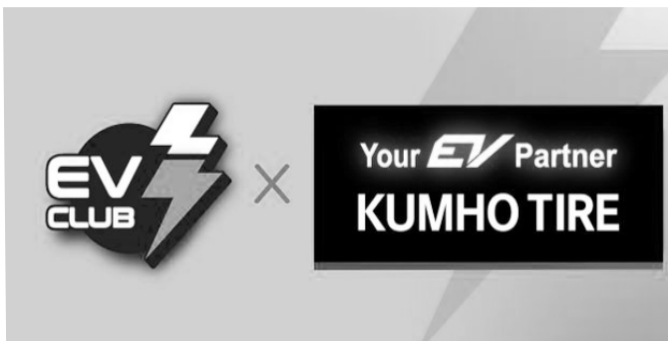
광주순환도로투자(주), 광주순환(주)(대표이사 이영훈)는 9월 2일 광주 북구 임동에 위치한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광주봉사관 빵 나눔터에서 서구 아동그룹홈 사랑의 빵 나눔 봉사활동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광주순환도로(소태·송암영업소) 이영훈 대표와 임직원 5명, 로템그룹홈·돈

보스코 나눔의 집·세움그룹홈·도담그룹홈·온새미로 아동 23명이 참여했다. 제빵봉사를 함께 하며, 아이들에게 제빵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후원자와 교류를 통한 유대감을 쌓기 위해 마련됐다.

이영훈 대표는 “시민들에게 사랑받아 성장해온 만큼 사회 환원으로 보답하고 싶었다”라며 “앞으로도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

◆테슬라 모델Y에 ‘전기차용 타이어’



금호타이어(정일택 대표이사)는 금호타이어가 올해 폭스바겐을 고객사로 확보한 데 이어 테슬라에도 전기차용 타이어를 공급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금호타이어가 테슬라의 중국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생산하는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모델Y 후륜구동(RWD)에 전기차용 제품인 ‘마제스티9 EV 솔루션 TA91’을 신차용 타이어로 납품한다.

금호타이어(정일택 대표이사)는 “전기차는 내연기관차보다 더 무겁고 순간 속도가 훨씬 빨라 타이어도 고품질을 요구한다. 업계에서는 테슬라가 모델Y에 금호타이어 선택을 금호타이어의 전기차 타이어 기술력을 인정한 것이라고”말했다.

전남대학교병원

◆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상담소 운영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안영근)이 8월31일 병원 1층 로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 중인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를 홍보하기 위한 상담소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안영근 병원장은 “화순전남대병원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다양한 지원정책을 홍보하고 있다”며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역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정부와 지자체, 기업 등에서 진행하는 의료비 지원제도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 안영근 전남대병원장 청렴 특강



전남대학교병원은 안영근 병원장이 청렴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 직접 반부패·청렴 특강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안영근 병원장은 “순천에는 팔마비라는 공적비가 있다. 고려시대 최석 순천부사가 임무를 마치면서 관례대로 주어진 여덟 마리의 말을 받지 않고 돌려보낸 행동으로 인해 그 뒤부터 부사가 오고갈 때의 관폐가 사라졌다”며 “공공기관의 직원으로서 관행을 깨는 자세로 청렴의식을 제고하고 15개 항목으로 구성된 전남대병원 임직원 행동강령을 준수하며 깨끗하고 부패 없는 직장을 만들기 위해 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전KPS

◆청년 고용 증대·일자리 창출 ‘맞손’



한전KPS(사장 김홍연)는 최근 본사에서 동신대학교와 청년고용 증대 및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한전KPS는 협약에 따라 교육생들에게 발전설비 정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관련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해 청년 취업역량 강화 및 직무수행을 경험할 수 있는 양질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홍연 한전KPS 사장은 “장기현장실습을 통해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과 기술인력의 역량 제고가 기대된다”며 “결과적으로 국내·외 안정적인 전력공급망 축 기반을 더욱 탄탄하게 다지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 27년 연속 대통령상 수상



한전KPS(사장 김홍연)가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전국품질경진대회에서 27년 연속 대통령상 수상의 쾌거를 거뒀다.

김홍연 사장은 “고품질·무결점 책임정비를 통해 발전설비의 안정과 안전을 책임지고 고객 가치를 창출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그린사업으로 업무영역을 확대해 국민과 고객들로부터 사랑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해양에너지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홍보대사 자처



해양에너지(대표 정희)는 오는 광주·전남지역 도시가스 공급업체인 해양에너지(대표 정희)는 9월 7일부터 11월 7일까지 62일간 비엔날레전시관을 비롯해 광주 일원에서 열리는 '제10회 광주 디자인비엔날레' 홍보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해양에너지 정희 대표는 “광주전남 전역을 순회하는 200여 대의 회사 순찰 차량 및 임직원 차량에 홍보 스티커를 부착하여 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성공개최에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알 림 >

본란은 본회 회원사 소식을 게재하고 있사오니 대표 동정, 행사, 제품 소개 등 기타 홍보하실 내용을 보내주시면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 담당 : 최 수 용 대리

○ e-mail : gjef3425@naver.com

〈제1618회 금요조찬포럼〉

· 주제 : 乙지키는 민생경제 함께 살립시다 · 강사 : 김정만 (국회의원)

1618회 금요조찬포럼은 김정만 국회의원을 초청하여 「乙지키는 민생경제 함께 살립시다」를 주제로 중소기업인식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1.4%가 예상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IMF, 코로나 상황을 제외하고는 지극히 낮은 수치입니다. 일본의 2분기 성장률은 1.5% 우리는 0.6%입니다. 일본과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5년 만에 역전 당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면 대기업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최근 중소기업 연체율이 2배 가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화폐를 활용과 정책자금을 통한 신용보증이 필요합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지역화폐를 통해 내수 경제 활성화와 소비 진작, 자영업자 소득 증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은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연체율 등 신용 문제로 어렵지만 높은 금리로 인해 신규대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정책자금을 지역에 배정하여 지원해야 합니다.

또 우리 기업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가 필요합니다. 영국에서 자동차 산업이 성장하고 사고가 많아지자 영국에서 도심 속에서는 마차보다 자동차가 빨리 달리면 안 된다면서 시속 30km이상 속도제한 규정이 만들어 졌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영국에서 시작 됐지만 독일과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승승장구 했습니다. 한나라의 규제가 어떻게 그 산업의 성장을 멈추게 하는지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로톡, 타다 등 신산업과 기존산업과의 갈등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존산업과 신산업간의 대화를 통해 적절한 규제완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성장을 지원해야합니다.

광주도 올해 국토교통부의 미래차 국가산단과 산업통상자원부의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를 지정 받았습니다. 진곡산단-빛그린 미래차국가산단-미래차 소부장특화 단지를 연계하여 내연차에서 미래차로, 자율주행차로의 전환을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정부와 광주시가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당초 계획대로 앵커기업인 LG 이노텍, 현대모비스, 한국알프스등 대기업과 100여 개 협력기업들이 우리지역에 성공적으로 안착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1. 경제 동향

◆ 경총, 「2022년지역별청년(15~29세) 고용동향의주요특징과시사점」 발표(8.28)

○ 지난 8월 28일 경총은 「2022년 지역별 청년(15~29세) 고용 동향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 경총은 ①수도권 청년고용 강세와 제주 재약진, ②울산·강원의 높은 청년실업률 문제, ③세종·전북의 청년 비경제활동인구 문제를 2022년 지역별 청년고용 특징으로 꼽았음.

① (수도권 청년고용 강세와 제주 재약진) 2022년 상반기는 서울(52.2%)·인천(50.1%)·경기(49.9%), 하반기는 제주(52.1%)·인천(51.7%)·서울(50.2%)의 순으로 높은 청년고용률을 기록함.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지역은 활동 기업과 신생기업 수가 다른 지역보다 많은만큼 청년들에게 제공한 일자리 기회 자체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며, 제주의 경우 여행과 관광이 재활성화되면서 청년고용도 호조를 나타낸 것으로 보임.

② (울산·강원, 높은 청년실업률 문제로 시름) 2022년 상반기에는 전남(10.3%)·강원(9.5%)·울산(9.4%), 하반기에는 울산(10.9%)·부산(7.6%)·강원(7.0%)의 순으로 청년실업률이 높게 나타남. 특히, 울산과 강원 지역은 20대 초반(20~24세)의 실업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해당 연령대의 마찰적 실업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 강원 지역 작년 상반기 20대 초반 실업률(17.5%)은 전국 평균(8.1%)의 2배를 상회, 울산 지역 작년 하반기 20대 초반 실업률(19.4%)은 전국 평균(5.7%)의 약 3.5배 수준

③ (세종·전북, 청년 10명 중 6명은 비경제활동인구) 세종이 청년 비경제활동인구 비중(上65.1%, 下 68.3%)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분석됨. 또한, 세종과 전북* 지역은 최근 5년(2018~2022)간 청년 비경제활동인구 비중 평균이 60%를 넘어서며 전국 평균보다 약 10%p높은 지역으로 나타남.

* 최근 5년간 청년 비경제활동 인구 비중 평균

상반기 : 전북(63.2%), 세종(62.6%), 전국 평균(52.2%)

하반기 : 전북(62.1%), 세종(64.0%), 전국 평균(52.5%)

○ 경총은 ① 지역 맞춤형 청년고용 지원 서비스 제공, ② 지역 내 가젤기업* 양성과 취업유발 계수가 높은 서비스업 내실화, ③ 청년이 언제나 쉽게 진입이 가능한

Ⅲ. 노동경제동향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 개개인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동법·제도를 개편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 상용근로자 10인 이상인 기업 중 최근 3년간 고성장 기준(매출액과 상용근로자 수가 연평균 20% 이상증가)을 충족하는 사업자등록 후 5년 이하인 기업(통계청)

◆ [기재부] 추석 명절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 위한 할인혜택 안내 (8.31~)

- 정부는 9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최근 공급 과잉, 소비 부진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 품목들의 소비 촉진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할인 혜택과 판매처 등 관련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추석 선물 증정 계획이 있으시거나 농축수산물 구매에 관심이 있으신 회원기업에서는 동 정보를 활용하셔서 다양한 혜택을 받으시고 농축수산물 소비 활성화에도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 기타 세부사항(할인행사 일정, 연락처 등)은 경충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통계청, 「2023년 7월 산업활동동향」 발표 (8.31)

- **(생산)** 2023년 7월 전산업생산은 서비스업(0.4%) 등에서 늘었으나, 광공업(△2.0%) 등에서 생산이 줄어 전월대비 0.7% 감소
 - ※ 전산업생산 증감율 추이(% , 전월대비) : 1.1('23.3)→ △1.3(4)→ 0.7(5)→ 0.0(6)→ △0.7(7)
- 광공업생산은 의복·모피(28.5%) 등에서 늘었으나, 전자부품(△11.2%), 기계장비(△7.1%) 등에서 줄어 전월대비 2.0% 감소
- 서비스업생산은 도소매(△1.2%) 등에서 줄었으나, 정보통신(3.2%), 금융·보험(1.5%) 등에서 늘어 전월대비 0.4% 증가
- **(제조업평균가동률)** 2023년 7월 제조업평균가동률은 70.2%로 전월대비 1.6%p 하락
 - ※ 제조업평균가동률 추이(%) : 72.0('23.3)→ 70.9(4)→ 72.8(5)→ 71.8(6)→ 70.2(7)

Ⅲ. 노동경제동향

- **(제조업 재고율*)** 2023년 7월 제조업 재고율은 123.9%로 전월대비 11.6%p 상승

* 제조업 재고율은 제조업 재고지수를 제조업 출하지수로 나눈 값으로, 출하된 물건보다 쌓인 물건이 더 많을 때 100%를 초과.

- **(소매판매)** 2023년 7월중 소매판매는 내구재(△5.1%), 비내구재(△2.1%), 준내구재(△3.6%) 판매가 모두 줄어 전월대비 3.2% 감소

※ 소매판매액지수 증감률 추이(전월대비, %) : 0.1('23.3)→ △2.6(4)→ 0.6(5)→ 0.9(6)→ △3.2(7)

※ 소매판매액지수는 2020년 7월(△4.6%) 이후 3년 만에 최대 감소 폭 기록

- **(설비투자)** 2023년 7월중 설비투자는 자동차 등 운송장비(△22.4%) 및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3.6%)에서 투자가 모두 줄어 전월대비 8.9% 감소

※ 설비투자는 2012년 3월(△12.6%) 이후 11년 4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 기록

- **(경기지수)** 현재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6(전월대비 0.5p 하락),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3(전월대비 0.4p 하락) 기록

◆ 고용노동부, 「2023년 7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8.31)

〈 고용 부문('23.7월,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기준) 〉

- **(종사자 수)** 사업체 종사자는 1,988만 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0만 2천명(2.1%) 늘어나며 '21년 3월부터 29개월 연속 증가
- (입·이직) 입직자는 102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 7천명(2.7%) 증가했고, 이직자는 101만 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 9천명(4.0%) 증가

〈 근로실태 부문('23.6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기준) 〉

- **(명목 임금)** 전체근로자 1인당 월평균 명목 임금총액은 373만 7천원으로 전년동월대비 7만 4천원(2.0%) 증가

Ⅲ. 노동경제동향

- **(총 근로시간)** 전체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59.3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2.6시간(1.7%) 증가

※ '22년 6월 지방선거로 인해 '23년 6월 월력상 근로일수가 전년동월대비 1일 증가(20일→21일)

[1~6월 누계 근로실태]

- **(명목 임금)** 1~6월 누계 전체근로자 1인당 월평균 명목 임금총액은 393만 8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9만 2천원(2.4%) 증가

※ 사업장 규모별 명목 임금상승률(1~6월 누계, %) : [300인 미만] 2.1, [300인 이상] 2.0

- **(총 근로시간)** 1~6월 누계 전체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56.9시간으로 전년 동기대비 0.3시간(0.2%) 증가

※ 1~6월 누계 월력상 근로일수는 전년동기대비 2일 증가, 건설업·숙박 및 음식점업·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에서 근로시간 감소로 증가폭 둔화

◆ 통계청, 「2023년 1/4분기(2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발표 (8.25)

- 2023년 1/4분기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2,020.7만개로 전년동기대비 45.7만개 증가

※ '일자리'는 근로자가 점유한 고용위치를 의미하며, '취업자'와 다른 개념임.

(예) 한 사람이 주중에 회사 다니면서 주말에 학원 강사를 한 경우 취업자는 한 사람이나 일자리는 복수로 계산

- 전년동기와 동일한 근로자가 점유한 지속 일자리는 1,416.2만개(전체 임금근로 일자리 대비70.1%), 퇴직·이직으로 근로자가 대체된 일자리는 344.4만개(17.0%)

- 기업체 생성 또는 사업 확장으로 생긴 신규 일자리는 260.0만개(12.9%), 기업체 소멸 또는 사업 축소로 사라진 소멸 일자리는 214.3만개

- 산업대분류별로는 건설업(9.2만개), 보건·사회복지(8.7만개), 제조업(5.4만개) 등에서 임금근로 일자리 수가 증가

Ⅲ. 노동경제동향

-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6.1만개)만 감소하였고, 60대 이상(30.5만개), 50대(14.1만개), 30대(3.8만개), 40대(3.5만개)에서는 임금근로 일자리 수가 증가
 - (60대 이상) 보건·사회복지(6.4만개), 건설업(4.9만개), 제조업(4.8만개) 등에서 증가
 - (20대 이하) 도소매(△2.8만개), 사업·임대(△1.8만개), 공공행정(△1.3만개) 등에서 감소

◆ 고용부는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통한 노동개혁 추진 지속

- 고용부는 8. 28「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등 발표
 - 고용부는 하반기 ▲임금체불 관련 근로감독 강화, ▲부당노동행위 관련 근로감독 강화 등을 통해 불법·불합리한 노사관계 개선에 주력한다는 계획
- 고용부는 ▲근로시간면제한도 초과, ▲사용자의 노조 채용 직원 급여 지급 등 위법·부당한 사례를 다수 확인했고, 차주 중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
 - ※ 고용부는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근로자 1,0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 521개소를 대상으로 근로시간면제 제도 운영현황등 실태조사진행
- 또한, 고용부는 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 자문단(2023. 2월 발족)’ 논의 결과를 반영해 노조 운영비 원조 투명화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

◆ 여당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노동개혁 관련 입법 추진 결의

- 여당은 8. 28~29 연찬회를 개최하고 노동개혁 추진 등 향후 의정활동 과제를 담은 결의문* 채택
 - * 여당은①가짜뉴스등선동정치에대한대응, ②경제활력제고를위한입법활동매진, ③연금·노동·교육3대개혁추진결의

Ⅲ. 노동경제동향

-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 날 연찬회에서 '노동개혁 등 미래세대를 위해 3대 개혁을 완수하는 것은 여야,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마땅히 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
 - 특히 여당 의원들이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와 관련된 노조법 개정안을 다수 발의한 가운데 대통령은 8. 29 국무회의에서 주요 국정과제 관련 법안 처리 촉구
 - 또한, 법제처는 이 날 국무회의에서 '2023년 정기국회 입법추진 대책'을 발표하고, 정기국회 통과가 필요한 핵심 법안으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조법 개정안 선정
 -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에서 노조법 제2조·제3조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기로 결정
- ※9월정기국회본회의: 9. 21, 9. 25